

통일교 중등학교 교과서 개발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이 지닌 특성을 살펴보고, 통일교계 고등학교의 종교 교과서 개정판을 평가하며, 미래의 종교 교과서 개발 방향을 탐색한 것이다. 한국에서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는 종교의 자유와 교육권 사이의 충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 교과서도 그렇다.

통일교의 중등학교 종교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2010년에 개정되었다. 통일교의 종교 교과서는 교육목표와 경험내용이 이해를 위주로 하고 있다. 서술된 경험내용에는 추상적 표현이 많고, 개념이나 낱말 또는 표현의 수준이나 방식 등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의 삶과 밀착되지 못한 면이 있다. 또한 경험내용이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된 것이 적지 않다.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에서 학습자보다는 교사가 주도하도록 되어있다.

미래 교과서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사항이 제시되었다. 첫째, 종교교과의 성격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이 종교적 이해뿐만 아니라 삶을 탐구하고 깨달음을 지향해야 하고,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므로 축소되어야 한다. 둘째, 입시위주의 열악한 수업환경이 개선되고 중등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국가 교육과정, 종교 교과서, 중등학교 종교교육, 통일교, 교과서의 개발

I. 서 론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교재 또는 교과서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종교 교과서는 인정 도서이다. 종교 교과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되 교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행되어 왔다.

통일교의 교육이념은 ‘삼대축복’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삼대축복’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으로서, 인간 스스로 개체를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며, 나아가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완성하는 것이다.¹⁾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우주만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3형태를 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이라고 하고, 이러한 3형태의 교육은 서로 균형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으로 이룰 수 있는 교육적 인간상을 인격자, 선민, 천재라고 한다.²⁾

통일교의 중등학교 교육도 이러한 교육이념을 지향한다. 한국에서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권 사이에서 양자에 속하는 여러 요인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왔다. 여러 가지 종교교육 문제 중의 하나가 교과서의 문제이다.

통일교는 6차 교육과정기인 1996년에 종교 교과서³⁾를 처음 발행하였고, 2010년에는 개정판을⁴⁾ 발행하였다. “종립학교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주최한 2006년 춘계학술대회는 종교 교과서의 목표, 내용, 교수-방법 등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필자는 이 때에 통일교가 발행한 초판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주요 사항은 7차 종교 교육과정과 통일교의 종교 교과서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종교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학생들의 종교적 발달 수준에 알맞은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었다.⁵⁾

이 글에서 필자는 통일교 종교 교과서의 개정과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에 이루어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의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2010년에 발행한 통일교 교과서 개정판을 평가한다. 셋째, 미래 종교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탐색한다.

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44-50쪽.

2)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345-353쪽; 교육의 형태와 교육적 인간상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이재일, 『통일사상의 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의 사회적 고찰』, 『통일사상연구논총』 15집 (아산: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7), 42-64쪽.

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종교』 1, 2, 3 (서울: 선화학원, 199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종교』 1, 2 (서울: 선화학원, 1996).

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1, 2, 3 (서울: 선문학원, 201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서울: 선문학원, 2010).

5) 이재일, 『통일교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서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2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2.), 207-222쪽.

II.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교과서란 학교 교육에서 사용하는 주된 교재를 말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구현물이다. 한편, 교육과정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이고 활동계획이다.⁶⁾ 또한 교육과정은 “사회 속의 학습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찾고 더 나은 배움과 더 나은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면 좋을까를 묻고,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답하고 계획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실천하고, 질 높은 성과를 노리는 총체적인 과정”이다.⁷⁾ 그러므로 교과서는 학습자들의 더 나은 삶(교육목적)을 위해 가르치고 배울 내용과 방법을 구성한 교재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로 구분된다. 종교 교과서는 국가의 관여 폭이 가장 낮은 인정 도서에 해당한다. 인정 도서로서의 종교 교과서는 국가가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만들며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은 중앙집권적이고 총론 우위의 개발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실제 교과 교육과정은 총론의 방향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총론과 각론이 괴리되기도 한다.⁸⁾ 종교 교과서는 종단이나 종립학교 등이 국가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개발하게 되므로, 최근의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온 흐름을 살펴보자.

1.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은 6차와 7차 교육과정을 거쳐 온 종교 교육과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7차 종교교육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7차 종교 교육과정은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실시하되 전자를 강조한다. 7차 종교 교육과정의 기본 목표는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의 습득과 건전한 종교관 정립”,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 확충”, “타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생활 태도 함양”이다.⁹⁾ 이는 6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동일한 것이다.

한편 7차 종교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방법으로 일상의 생활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종교 상황에서 타종교에 대한 포용력을 기르며 종교 간의 화합을 지향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토론식 수업, 각 종교에 관련된 시청각 자료의 활용, 발문과 수시 평

6) 박도순·홍후조,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문음사, 2007), 18쪽.

7) 위의 책, 49쪽.

8) 소경희,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2005), 31-32, 45-46쪽.

9)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129쪽.

가 및 과제물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¹⁰⁾

2007 개정 종교 교육과정은 ‘종교’ 과목의 명칭을 ‘생활과 종교’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 학문 위주의 과목명을 실생활 중심의 과목명으로 변경”한 것이고, “교양과목임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다.¹¹⁾ 여기에는 교과와 내용을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는 것,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¹²⁾ 첫 번째 교육목표는 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동일하다. 곧, ‘건전한 종교관의 정립’이다. 두 번째 것은 ‘성숙한 신앙심 확충’에서 ‘성숙한 인격 배양’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 것은 ‘종교인의 생활 태도 함양’에서 ‘참된 삶의 태도 형성’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종교의 신앙인 또는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종교관, 인격, 생활태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내용상으로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다. 내용체계표 상으로 볼 때, 대표적인 변화는 세 번째 단원에서 나타난다. 7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¹³⁾에서 세 번째 단원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은 “종교 사상과 배경”, “참된 것과 깨달음”, “종교 특성의 이해”의 3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설명하는 부분에는 4개 항목으로 서술되어, 표와 내용 서술 사이가 일치하지 않는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이를 바로 잡았다. 내용체계표에서 세 번째 단원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를 “종교적 차이의 맥락”, “종교들의 비교”, “종교의 특성 이해”, “세속 사회와 종교”의 4항목으로 구성하였다.¹⁴⁾ 여섯 번째 단원에서는 “한국 토착 종교의 이해” 항목을 추가하였고, 여덟 번째 단원에서는 마지막 항목을 “나의 종교생활 설계”에서 “나의 종교관 점검”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특정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배려하였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¹⁵⁾

2009 개정 종교 교육과정이 2007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 교과명

10) 위의 책, 147-148쪽.

11)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요』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112쪽.

1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한문 및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41쪽.

13) 교육부, 앞의 책, 132쪽.

14) 교육부, 위의 책, 132쪽;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앞의 책, 42쪽.

15)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9]), 87-121쪽;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 2011. 8. 9.

이 “생활과 종교”에서 “종교학”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교양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목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즉, 여전히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참된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기본 목표와 더불어 6가지 세부 목표도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8개 영역이 있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7개 영역으로 축소하였다. 곧, 기존의 8개의 영역 중 7영역 “종교 공동체의 이해”를 해체하여 세부 항목을 다른 영역으로 옮기거나 다른 영역의 세부 항목에 흡수시켰다. 즉, 7영역의 세부 항목 중 “종교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를 2영역으로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4영역으로 또한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을 3영역으로 옮기고, “종교적 인격 형성”을 삭제했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1영역의 마지막 세부 항목인 “종교의 의미와 역할”의 해설부에 “③ 궁극적인 가치와의 만남과 종교적 인격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학의 관점에서 7개의 영역을 4분야로 묶었다. 즉 1과 2영역을 “종교학 이론에 입각하여 종교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도모하는 영역들”로, 3과 4영역을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따른 종교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영역들”로, 5와 6영역을 “다양한 종교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영역들”로, 7영역을 “개별 종교들의 사례를 통해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고 심화하는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세부 항목의 변화 중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영역에서 “앎과 믿음” 항목이 생략되었는데, 앎과 믿음의 의미와 차이 및 양자의 관계는 종교 이해에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고 본다. 2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생략하고,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을 “종교적 세계관의 이해”로 변경하였다.

4영역은 “종교적 인간관, 사회관, 자연관”으로 개명되었다. 여기서는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생략하고 이를 “종교적 자연관”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종교와 과학의 관계”는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다룰 가치가 있다.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종교는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행위임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5영역에서 세계의 주요 종교를 동양 종교, 서양 종교, 기타 종교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3영역의 “세속 사회와 종교”와 4영역의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서 다루는 내용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부분적으로는 중복된다. 두 항목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습목표뿐만 아니라 “영역 성취 기준”과 “학습내용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역 성취 기준”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맞춘 수업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학습내용 성취 기준”에서는

영역별 그리고 세부 항목별 학습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향하는 수업의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7차 교육과정에도 들어있었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간략하게 축약되어 서술되었다가, 2009 교육과정에서 더 상세하고 뚜렷하게 서술된 것이다.

Ⅲ. 통일교 교과서의 개정과 평가

1. 통일교 교과서의 개정

통일교가 발행한 종교 교과서 초판은 6차 교육과정기의 후반기에 준비하여 발행되었다. 이후 7차 교육과정기(1997~2007년)가 되면서 종교 교육과정 또한 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춰 2005년경부터 교과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정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첫째, 초판 발행 이후 시간이 흘러 국가 교육과정이 두 차례 개정되었다. 둘째, 교사들이 학교교육 현장의 경험 이 반영된 교과서를 원했다. 셋째, 한국사회의 인쇄출판 기술이 향상되었고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는 안목이 높아졌다는 것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공표되면서 다시 교과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약 2년간에 걸쳐 준비한 끝에 2010년에 개정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중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개정 당시에 두 가지 개정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원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통일교의 이념을 기준으로 삼아 내용을 구성하되,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서술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첫째 원칙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통일교의 교육이념에 맞추어 교과서의 단원과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다. 다만 교과서의 단원 Ⅲ, Ⅵ, Ⅷ, Ⅸ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다.

〈표 1〉 2007 개정 종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의 목차 비교

2007 개정 종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교과서	
영역	내용 요소	단원	세부항목
(1) 인간과 종교	1.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2.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3. 앎과 믿음 4. 종교의 의미와 역할	I. 인간과 종교	1. 궁극적 물음과 문제” 2. 종교와의 만남 3. 앎과 믿음 4. 종교의 의미와 역할
(2) 종교현상의 이해	1. 여러 가지 인생 문제 2.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3. 경전의 의미와 해석 4. 종교 의례와 규범	II. 종교경전의 이해와 실천	1. 여러 가지 인생 문제 2.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3. 경전의 의미와 해석 4. 종교 의례와 규범
(3)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1. 종교적 차이의 맥락 2. 종교들의 비교 3. 종교의 특성 이해 4. 세속 사회와 종교	III.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경전의 정신	1.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 2. 궁극적 실재 3. 양심과 도덕적 삶 4. 남을 위하는 삶
(4)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1. 다양한 인간관 2. 종교적 인간관 3. 종교적 자연관 4. 종교와 과학의 관계	IV.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1. 다양한 인간관 2. 종교적 인간관 3. 종교적 자연관 4. 종교와 과학의 관계
(5) 세계의 종교와 문화	1. 유교 2. 도교 3. 불교 4. 그리스도교 5. 이슬람교 6. 기타 종교	V. 세계의 종교와 문화	1. 유교 2. 도교 3. 불교 4. 기독교 5. 이슬람교 6. 힌두교
(6) 한국의 종교와 문화	1. 한국 토착 종교의 이해 2. 한국 불교의 이해 3. 한국 유교 및 도교의 이해 4. 한국 그리스도교의 이해 5. 한국 신종교와 기타 종교의 이해	VI. 한국의 종교와 문화	1. 전통적 민간신앙 2. 외래 종교의 한국적 수용 3. 한국의 신종교 4. 신종교의 새 시대 도래사상
(7) 종교 공동체의 이해	1.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2. 종교의 사회적 기능 3.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 4. 종교적 인격 형성	VII. 종교 공동체의 이해	1.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2. 종교의 기능 3.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 4. 종교적 인격 형성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1. 경전과 교리 2. 종교적 생활 3. 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4. 나의 종교관 점검	VIII.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1. 하나님과 세계 2. 인간을 중심한 두 세계 3. 원죄란 무엇인가 4. 타락의 과정과 결과
		IX. 하나님의 구원섭리와 역사	1.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중심한 구원섭리 2. 모세와 예수님을 중심한 구원섭리 3. 역사의 반복과 하나님의 섭리 4. 메시아와 한민족

둘째 원칙은 학생들이 읽는 교과서, 교사들이 활용하는 교과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교과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쉬어가기”를 두었다. 또한 일상생활과 중등학교의 현장을 반영하며, 사진이나 삽화, 도표, 디자인 등에도 신중하려고 하였다.

〈표 2〉 단원별 “쉬어가기”의 주제와 내용

단원	주제	내용
I	한 편의 시와 대화 나누기	천상병의 시 “귀천” 감상
II	장례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장례문화의 기반인 종교를 서술
III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워야?	죽은 자의 심장을 꺼내 무게를 다는 『이집트 사자의 서』 내용을 소개
IV	생명의 기원에 관한 갈등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보는 진화론, 창조론, 지적설계론의 관점을 소개
V	종교 속에 금지된 음식	종교에 따라 금지하는 음식이 다름을 소개
VI	종교의 궁극적 목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의 평화관련 내용을 소개
VII	종교의 벽을 넘어 기도할 수 있는 사원	인도에 있는 바하이교의 연꽃 사원 소개
VIII	우리나라 성문화의 현주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제도와 관련하여 성욕의 문제를 설명
IX	한국인의 희망을 찾아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 박두진의 “해”,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를 소개

여기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단원과 항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초점을 두었으나, 교과서 III단원에서는 종교의 공통점을 찾아 서술하였다. 그 이유는 세계종교와 한국종교를 다루는 단원에서 개별종교의 특성을 배우면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므로, III단원에서 종교의 공통점을 배우는 것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한국의 종교와 문화”를 다루는 영역에서 한국에 있는 주요 개별 종교를 서술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세계의 종교와 문화”에서 다룬 내용을 재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 교과서의 VI단원에서는 외래 종교의 한국적 수용과 신종교에 중점을 두었다.

통일교 교과서의 VIII 단원과 IX 단원은 특정 종교로서의 통일교를 소개한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을 하나의 영역에서 다루도록 되어있다. 통일교 교과서에서는 두 단원으로 확장하여, 주로 『원리강론』의 중심 내용을 서술하였다.

통일교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과를 담당한 교사들은 교과서의 개정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를 표명하였다.

학생들이 종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종교적인 내용의 단순한 소개보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생활의 지혜나 덕목이 강화되는 교과서를 원하였다. 그리고 예술적 감각과 상상력을 활용하거나, 명상과 요가 그리고 영화 등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개발되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보조 자료로서 인성교육자료, 시청각 자료, 명상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은 인쇄와 출판에 대한 기대도 표시하였다. 오늘날에는 인쇄와 출판의 기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종교 교과서도 인쇄와 출판의 기술을 활용하여 디자인, 색상, 글씨체, 도표와 사진 등을 세련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서는 교과서를 기대하고 있었다.¹⁶⁾

종교 교사들의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감안하여 종교 교과서를 개정하고자 하였다. 개별 종교를 다룰 경우 해당 종단의 관점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현장 경험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필하였고 또한 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고려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중·고등학생이 학습하기 어려운 것도 포함되어 있다.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맞추다보니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게 되었다.

2. 통일교 교과서의 평가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사용하는 교재이다. 개정판 종교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물었을 때, 학교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개정판 교과서에 흥미를 보이기도 했고, 통일교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종교 과목에 대해 그리고 종교 교과서에 대해 중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초판에 비해 개정판은 더욱 체계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등학생들에게는 딱딱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보았다. 교과서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우므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의욕을 끌어내기 위해 시청각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과서가 종교 수업의 보조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제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평가해보자. 교육과정 이론은 전통주의, 개념-경험주의, 재개념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주의자는 교육의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의 수단 개발, 교육결과의 평가에 관한 절차를 제시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개념-경험주의자는 전통주의 방식을 비판하고 교육과정 연구에 사회과학적 방법이나 공학적 방법을 적용한다. 개념-경험주의 이론은 전통주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보완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념주의자는 이전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한다. 재개념주의자는 교육과정과 연관된 개인의 의식 문

16) 이재일, 『통일교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서 분석과 평가』, 220쪽.

제와 사회구조 문제를 제기하여 인간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론적 기초가 불확실하고 대안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닌다.¹⁷⁾

전통주의적 이론은 교육과정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 가치중립적이며 기술공학적이라는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 설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침을 제공하여 여전히 학교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다.¹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도 기본적으로는 전통주의적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전통주의적 교육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통일교 교과서를 평가해보자.

랄프 타일러(Ralph W. Tyler)의 이론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의 설정, 학습경험의 선정, 학습경험의 조직, 평가의 4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결과물인 교과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교과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통일교의 이념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위의 <표 1>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과서의 단원과 세부항목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최대한 맞추고자 하였다. 이는 교육 3가지 기본 교육목표와 6가지 세부 교육목표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과서에 기본 목표와 세부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각 단원을 시작하면서 “단원의 길잡이”를 두었는데, 여기에서 단원의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교과서는 학습자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제 학습경험의 선정과 조직에 초점을 맞춰 교과서를 검토하고자 한다. 학습내용이나 학습경험의 측면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정확성, 연계성, 참신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적합성은 교육과정 목표의 달성, 학생의 발달이나 요구 또는 흥미 그리고 능력, 경험내용의 양과 지도 시간, 경험내용의 수준과 난이도, 교재, 교구 자료 준비 등과 관련된다. 정확성은 용어, 표현, 사진, 도표, 지식체계 등이 올바른지를 묻는 것이다. 연계성은 학년간의 계열, 교과간의 관련, 경험내용의 배열 등을 말한다. 참신성은 단원의 전개, 자료 제시, 편집 등이 창의적이고 신선한지를 묻는 것이다.¹⁹⁾

필자는 교과서를 검토하는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선정하였다. 즉, 교과서에 제시된 경험내용이 학습자로 하여금 교육목표로 나아가도록 이끄는지, 학습자의 삶과 관련되었는지,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교수·학습활동에서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로 나누어 교과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대체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영역과 요소에 맞추어 교과서의 단원과 항목을 구성하였다. 만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영역과 요소가 교육목표 달성에 합당한 것이라면, 교과서에 서술된 경험내용도 국가 교육과정의 영역과

17) 허숙·유혜령 편, 『교육현상의 재개념화』 (서울: 교육과학사, 1997), 105-113쪽.

18) 김억환·김문환, 『새로운 교육과정 탐구』 (서울: 성원사, 1991), 104, 111쪽.

19) 박도순·홍후조, 앞의 책, 241쪽.

내용 요소를 따랐으므로 대체로 교육목표 달성에 합당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교육목표가 ‘이해’에 초점을 맞춰 설명되고 내용체계의 영역과 내용요소들이 거의 모두 ‘인지적 이해’를 위주로 하는 국가 교육과정을 따른 통일교의 종교 교과서를 통해 ‘성숙한 인격 배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경험내용이 과연 학습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종교 관련 내용은 중·고등학생들이 접하는 현실적 삶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교과서 제작과정에서는 실제 생활에 근거한 사태와 언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추상적 표현이 많다. 청소년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과서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이나 낱말, 표현의 수준이나 방식 등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의 세계와 밀착되지 못한 면이 있다. 그 이유는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이 종교학개론, 세계종교, 한국종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 양이 방대하고 수준이 어려운 점도 있고, 교과서 제작상의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험내용이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중학교 교과서보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험 내용이 더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종교 자체의 추상성, 내용의 방대함, 표현기법의 미숙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거나, 그림이나 표로 만들어 보임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불러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업에서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개정 교과서의 내용상으로는 학습자보다는 교사가 주도하도록 되어있다. 경험내용의 서술이나 제시된 연구 문제가 학생들의 구체적 활동을 안내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고, 조사해보고, 토론해보자는 식으로 되어 있어, 과연 이러한 방식의 안내가 학생들로 하여금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는 교사가 사용하는 학습방법과도 관련된다. 교사가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더 많이 하여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중학교용 국가 종교 교육과정이 제정되지 않아, 중학교 교과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IV. 미래 교과서의 개발 방향

타일러의 교육과정이론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도 유용하다. 즉, 교육목표의 설정으로부터 학습경험의 선정과 조직을 거쳐 학습경험의 평가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된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교과 성격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2009에 개정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에 대한 진술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종교교과 성격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2007년 개정 종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지적한 바가 있다.²⁰⁾ 2009년 개정 종교교육과정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하므로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3가지 기본 교육목표와 6가지 세부적 교육목표가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내용체계의 영역과 내용 요소들이 거의 모두 ‘인지적 이해’를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 내용이 종교학의 주요 영역을 간추려 놓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어서, 중·고등학생들이 이 모든 내용을 습득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넷째, 위의 내용을 생활 경험과 영상물을 활용한 대화와 토의 등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안내하는데, 이 역시 무리라는 것이다. 다섯째, 종교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명확히 하는 학습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성급한 단정이나 결론을 유보하는 열린 학습이 상충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하려면 그리고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수준의 종교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종교학적 교육을 위주로 하고 종파적 교육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다. 7개 영역에 담겨있는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인지적 이해’를 위한 지식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학적 지식교육은 종교 일반에 관한 지식과 개별 종교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어떤 교육방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종교학적 지식교육은 건전한 종교관 정립에 도움을 주겠지만 성숙한 인격 함양이나 참된 삶의 태도 형성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인격 함양의 경우, 지식교육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중등학교 종교교과는 종교학적 지식교육에 그칠 수 없다. 차제에 중등학교의 종교교과 성격의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란 교육을 위한 공간이요 현장이다. 이러한 면에서 교육을 중심에 놓고 종교를 살펴보자.

종교와 교육 중 무엇을 본위로 보느냐에 따라 종교교육은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종교를 본위로 하고 교육을 수단으로 삼는 종교교육이 있다. 둘째, 교육을 본위로 하고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종교교육이 있다.²¹⁾

중등학교의 종교교과는 교육을 본위로 하고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20) 이재일, 『종교교과 수업모형에 따른 수업사례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3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12.), 39-41, 43쪽.

21) 김재웅, 『종교와 교육의 관계 재음미: 교육본위론에서 본 종교교육의 의미』, 『교육원리연구』 Vol.11, No.2. (서울: 한국교육원리학회, 2006), 135-161쪽.

하면 학교란 종교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그 무엇보다 교육활동이 우선시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종교교과는 종교를 소재로 삼아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과목인 것이다. 중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교를 소재로 삼아 실시하는 교육이다. “종교를 소재로 하는 교육… 종교의 가치도… 교육의 가치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²⁾ 교육을 본위로 하는 종교교과에서 종교는 교육적 의미를 풍요롭게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종교교과는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과이어야 할 것이다.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는 종교를 세계관으로 이해한다.²³⁾ 종교는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종교교과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서 건강하고 성숙한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종교는 인간을 세계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로 안내한다. 곧, 인간과 세계의 관계성 또는 자아와 우주의 관계성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준다.²⁴⁾ 그런데 근대의 세계관은 인간의 개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사회나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전제하고 세계를 이해한다. 근대의 세계관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려는 탈근대의 세계관은 “모든 존재들 간의 근원적 통일성을 전제하고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통일체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탈근대의 세계관 곧, 통일체적 세계관으로 안내하는 통로가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탈근대의 세계관은 종교적 세계관과 상통한다.

종교교과는 또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깨닫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의 정점에 있는 신비체험의 핵심 요소는 깨달음이다. 이는 깊은 차원의 세계로 입문하고,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궁극적 실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각과 변화의 체험이다.²⁶⁾

종교 교육과정은 근대의 지식-정보 전달적 교육을 넘어서서 학습자 각자 살아온 경험에 대한 재해석을 강조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재개념화하고, 타인과의 관련성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과거를 재구성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며, 더 큰 공동체 의식에 다가서야 한다.²⁷⁾ 이는 교육을 삶의 탐구과정으로 여기는 것이다. 종교교과 교육과정은 지혜를 만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설정한 3가지 기본 교육목표는 교육을 본위로 하고 종교가 소재

22) 장상호, 『학문과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57쪽.

23) Ninian Smart, *Worldviews: Crosscultural Explorations of Human Beliefs*,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 역 (서울: 이학사, 2000).

24)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89쪽.

25) 홍승표, 『깨달음의 사회학』 (서울: 예문서원, 2002), 20-21쪽.

26) 오강남·성혜영,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서울: 북성재, 2011), 38-39쪽.

27) Patrick Slattery, *Curriculum Development in The Postmodern Era* (New York: Gland Publishing, Inc., 1995), p. 77.

가 되는 종교교과,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도록 돕는 종교교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깨닫는 종교교과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열악한 수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이다. 종교 교과서를 개발하려면, 그 교과서가 사용되는 교육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중등학교 교육환경에서는 아무리 잘 만든 종교 교과서일지라도 종교교과의 본질을 구현하는 수업 교재로 활용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입시위주의 성적경쟁으로 비정상적 상태에 떨어진지 오래되었다. 그리하여 중등교육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 기관일 뿐이다.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하기도 한다. 입시와 무관한 종교교과는 학교와 교사 및 학생으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교과의 3가지 기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인격을 배양하는 것은 학교의 특정 교과나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과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생교육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²⁸⁾

더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3년에 시행되면 중등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압박을 받는 중등학교로서는, 그 결과로 종교교과가 위축되고 종교교과의 수업이 더욱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²⁹⁾

중등교육의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중등교육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열악한 수업환경이 개선되어야, 중등학교의 종교교육도 새롭게 개발하는 종교 교과서도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종교 교과서가 사용되는 현장은 학교이므로 종교 교과서의 개발에는 학교 교육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2010년 개정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종교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교사들이 교과서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종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로 구성된 종교교과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살피고 교과서의 개발과 수업에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28) 안성환, 「교수활동이 지닌 평생교육 및 인격교육적 속성」, 『인격교육』 4권 2호 (고양: 한국인격교육학회, 2010. 10), 21-36쪽.

29) 이재일, 「종교교과 수업모형에 따른 수업사례 연구」, 46쪽.

V. 결 론

교과서란 학교교육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주된 교재를 말한다. 통일교는 종교 교과서를 1996년에 처음 발행하고, 2010년에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종교 교과서는 인정도서로서, 국가 교육과정에 맞춰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종교 교과서는 종단의 이념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작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최근의 국가 수준의 종교 교육과정이 개정된 흐름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통일교가 발행한 종교 교과서의 특성과 한계를 찾아보았다. 나아가 새로운 교과서 개발의 개발과 관련하여 종교교과의 성격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과서가 사용되는 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 현장의 요구를 교과서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요」,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한문 및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 2011. 8. 9.
- 김억환·김문환, 『새로운 교육과정 탐구』, 서울: 성원사, 1991.
- 김재웅, 「종교와 교육의 관계 재음미: 교육본위론에서 본 종교교육의 의미」, 『교육원리연구』 Vol.11, No.2, 한국교육원리학회, 2006, 135-161쪽.
-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박도순·홍후조,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문음사, 2007.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종교』, 1. 2. 3, 서울: 선화학원, 199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종교』, 1. 2, 서울: 선화학원, 199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1. 2. 3, 서울: 선문학원, 2010.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서울: 선문학원, 2010.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 소경희,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안성환, 「교수활동이 지닌 평생교육 및 인격교육적 속성」, 『인격교육』, 4권 2호, 고양: 한국인격교육학회, 2010, 10.
- 오강남·성해영,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서울: 북성재, 2011.
- 이재일, 「종교교과 수업모형에 따른 수업사례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3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12.
- 이재일, 「통일교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서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2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2.
- 이재일, 「통일사상의 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의 사적 고찰」, 『통일사상연구논총』, 15집, 아산: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7.
- 장상호, 『학문과 교육』[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 허숙·유혜령 편, 『교육현상의 재개념화』,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홍승표, 『깨달음의 사회학』, 서울: 예문서원, 2002.
- Smart, Ninian, *Worldviews: Crosscultural Explorations of Human Beliefs*,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 역, 서울: 이학사, 2000.
- Slattery, Patrick, *Curriculum Development in The Postmodern Era*, New York: Gland Publishing, Inc, 1995.

원고접수 : 2012년 1월 12일 1차 심사: 1월 25일 게재승인일: 2월 13일

연구자소개 : 이재일

① 전공 : 교육학 · 신학 / 소속: 선문대학교 순결가정문화학과

② 관심영역 : 종교교육, 인성교육, 개화기의 한국교육

③ 주요논저 : 「다원종교사회에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④ E-mail : leejaeil21@hanmail.net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Textbooks
of Unificationism School**

Lee, Jaeil

Sun Moon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curriculum about the religious subject, to evaluate a revised edition of the Unificationism textbooks,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future religious textbook.

The religious textbooks of Unificationism school have been revised reflecting a national curriculum in 2010. The textbooks focuses on ‘understanding’ in educational goals and contents. There are abstract expressions in the contents described in the textbooks. There are also some gaps between the lives of students and the levels of concept, word, and expression of the textbooks. Some contents of the textbooks are hard for students to understand. Teachers comes to lead teaching-learning activity than the student in the religious textbooks.

The three pre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religious textbook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us subject should be reviewed. The goals and contents of the national curriculum about the religious subject should aim to the searching and enlightening the meaning of life as well as religious understanding, and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should be reduced. Second, the poor environment of school that focuses only on entrance examinations should be reformed and the secondary education should be normalized. Third, an organization reflecting the demand of education arena is necessary.

Key words: National Curriculum, Religious Textbook, Religiou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Unificationism, Development of Future Religious Textbook